

첫 4700에 IPO시장 후끈… 케이뱅크·무신사 출격 준비

〈코스피〉

케이뱅크·무신사 흥행 관심 쏠려
대기업 계열 자회사 IPO 줄대기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 재점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43)는 지난해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공모주 투자를 시작했다. 예·적금이 투자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생각은 코스피가 3000~4000을 가볍게 넘어서자 이때부터 달라졌다. 프로티나, 알지노믹스 공모주에 청약해 단숨에 수백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여유자금을 언제든 뺄 수 있도록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둔다. 또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 기업공개(IPO) 일정을 챙긴다. 김씨는 “연초부터 증시가 무섭게 달아오르는 걸 보니 공모주 대박도 계속될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65% 오른 4723.10에 마감했다. 사상 첫 4700선을 넘어선 것이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다. 국내 증시가 ‘오전피(코스피 5000)’를 바라보자 시장의 관심은 공모주 시장으로 향한다. 지난해 ‘따따벌’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상승) 행진을 이어간 공모주를 보며 투자자들



코스피가 사상 첫 4700선을 넘은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의 학습효과가 생긴 데다 올해도 케이뱅크, 무신사 등 초대어급 공모주가 줄줄이 출격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케이뱅크는 공모가 밴드를 8300~9500원으로 제시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모 주식 수는 보통주 6000만주로, 공모희망가 하단 기준 모집금액은 4980억원, 상단 기준 최대 5700억원이다.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공모 구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공모가를 이전 시도 대비 낮췄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비교회사로 카카오펙과 일본 라쿠텐뱅크를 선정해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 수준으로 공모희망가를 책정했다. 지난 두 번째 IPO 도전 때 공모가 밴드는 9500원~1만 2000원이었는데, 상장 후 예상 시총으로 비교하면 상단 기준 5조원 대에서 3조 8500억원 수준으로 약 1조원 몸값을 낮춘 모습이다. 시장 눈높이를 반영한 조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반드시 상장하겠다는 결의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무신사 역시 대형 플랫폼 IPO 후보

로 거론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케이뱅크와 무신사가 상반기 중 안정적으로 상장 성공할 경우, 그동안 상장을 미뤄왔던 대형 기업들의 IPO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케이뱅크·무신사 흥행 이후에 더 쏠린다. 이들이 문을 열 경우, 다음 차례는 대기업 계열 자회사 IPO다. LS그룹의 예식솔루션즈를 비롯해 HD현대, SK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상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사모펀드(PEF) 투자나 프리IPO 과정에서 상장을 전제

로 자금을 유치한 상태다. 일정 내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 여건과 무관하게 IPO를 추진해야 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장이 선택이 아닌 ‘일정’이 된 기업들이 동시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026년 IPO 시장의 본격적 시험대는 대어 흥행 여부가 아니라 중복상장 리스크로 이동하고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이나 그룹 내 핵심 사업부 분리 상장은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왔다. 실제로 거래소와 당국 역시 중복상장 이슈를 IPO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공모주 시장이 빠르게 달아올랐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단기 수익률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회사 IPO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투자자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형 IPO는 없었지만 공모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며 “올해 IPO 관전 포인트는 케이뱅크·무신사 이후 이어질 자회사 상장을 시장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주가조작 뿌리 뽑는다”… 대응단 2팀 확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유기적 협업
기존 1팀서 확대해 대응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을 확대한다. 14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이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날 관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직제 개정과 인사 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2팀 체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와 압수수색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혐의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조직을 추가로 확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확대 개편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1개씩 추가 신설해 총 2개 팀으로 운영된다. 각 팀은 금융위의 강제조사반, 금감원의 일반조사반, 거래소의 신속심리반이 유

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와 소속 조사 인력 8명을 배치하고, 2팀에는 증원 인력 7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투입한 뒤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하고,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3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확대를 통해 윈스트라이크아웃 원칙에 따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채권·CD 전자등록발행 643조… 6% 증가

CD 발행 30%, 교환사채 136% ↑
교환사채 중심 메자닌 증권 발행 늘어

국내 채권·단기금융시장에서 전자등록발행이 다시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리 환경 변화 속에서도 회사채·CD 발행이 늘고, 메자닌 증권 시장이 교환사채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발행 규모를 끌어올렸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채권·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64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605조 5000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채권 발행 규모는 576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고, CD 발행은 66조 9000억원으로 29.9% 급증했다. 특히 단기자금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CD 발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종류별로는 금융회사채가 207조 6130억원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며 가

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특수금융채, 일반회사채, 일반특수채, CD 순으로 발행 규모가 컸다. 지방채와 지방공사채 발행도 각각 50.0%, 45.5% 증가하며 눈에 띄는 확대 흐름을 보였다. 메자닌 증권 발행은 교환사채(EB)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25년 메자닌 증권 발행 규모는 10조 8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전환사채(CB)는 5조 4791억원으로 5.3% 감소했으나, 교환사채는 4조 7789억원으로 1년 새 136%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주도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5636억원으로 10.6% 줄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발행 확대 배경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함께 디지털 기반 발행 환경의 안정화, 시장과 고객의 혁신 수요 대응,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따른 제도적 대응,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허정윤 기자

“지금은 한국투자”… 한투證 캠페인 전개

신규·국내주식 입고 고객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이 ‘리부트 코리아(Reboot Korea) 2026, 지금은 한국투자’ 캠페인을 시작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리부트 코리아 2026, 지금은 한국투자’ 캠페인은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 흐름 속에서 고객들이 투자 기회를 보다 쉽게 체감하고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거래 확대를 넘어, 고객의 투자 경험을 넓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신규계좌 이벤트와 국내주식 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1월 말까지 뱅키스 주식계좌 신규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KOSPI 200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종목의 주

식 2주를 지급한다.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1년간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또 3월 말까지 국내주식 입고 고객에게 최대 501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고객이 다시 시작되는 시장 흐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설계했다”며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의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실적 중심 혜택을 통해 국내주식 투자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금현물 ETF, 순자산 4조 돌파

국내 원자재 ETF 중 최대 자금 유입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 금현물형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은 4조 4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순자산액 3조원 돌파에 성공한 것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1조원이 증가한 셈

이다. ACE KRX금현물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 2021년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초로 선보인 금 현물형 ETF로, 한국거래소에 산출·발표하는 KRX금현물 지수를 추종한다. 금 현물 ETF는 선물 월물교체(롤오버) 비용이나 재간접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70% 한도로 투자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